

2019 해남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
약 보고 서

2019. 1.

목 차

I. 조사개요	03p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05p
1. 자연·지리적 환경	05p
2. 고고·역사적 배경	06p
III. 조사내용	09p
1. 패각층위	11p
2. Pit별 조사내용	12p
IV. 조사성과	19p
조사단의견서	20p
출토유물현황	22p

I. 조사개요

1. 조사명 : 해남 군곡리 패총 6차 발굴조사(허가 제2018-1050호)
2. 조사지역 :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907번지 일원
3. 조사면적 : 1008m²
4. 조사기간 : 2018년 08월 21일 ~ 2019년 01월 17일(현장조사 53일)
5. 조사기관 : 목포대학교박물관

6. 조사 목적 및 경위

군곡리 패총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지식묘, 패각층, 주거지, 토광묘, 수혈 등의 유구를 조사하였지만 전체면적(83,557m²) 중 일부만을 조사하여 유적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경작으로 인하여 유적의 훼손이 우려된다. 이에 패총과 유구의 분포범위 등을 확인 후, 성격 규명 및 전체적인 층위를 파악하여 고지형을 복원하고 정비·복원에 활용하고자 한다.

7. 조사단구성

• 조사단장	김건수(목포대학교박물관장)
• 자문위원	최성락(목포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이정호(동신대학교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은화수(국립나주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정영희(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조사원	김영훈(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강귀형(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 준조사원	정혜림(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 보조원	배형곤·송현수(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8. 조사방법

- 1) 구릉의 남동쪽 하단부에 방격법으로 10×10m Pit 30여개를 설치하여 유구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조사 진행
- 2) 유적의 전체적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구릉의 상부, 사면부, 평지부로 구분하여 8×8m, 3×8m, 2×8m, 6×6m, 4×4m로 Pit를 설정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유구 밀집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확장조사 및 유구 내부조사
- 3)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유구와 유물은 분포범위와 출토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디지털카메라와 영상기기 등으로 촬영(항공촬영 포함)
- 4) 유구실측작업(평면, 입면, 단면, 토층은 1/20, 1/40 스케일로 실측)
- 5) 발굴조사시 출토된 유물은 세척 후 사진촬영과 실측을 하고 종류별로 분류·보관하며, 보존처리를 요하는 유물은 응급 보존처리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
- 6) 유적의 절대연대 및 성격을 도출하기 위한 자연과학분석 등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해남군은 한반도의 최남단 서남해안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군역으로, 동북쪽만이 강진, 영암과 연결된 육지이고 3면이 모두 바다로 이루어진 반도이다. 또한 주변 환경 역시 해남반도·화원반도·산이반도·금호도·어불도 등 많은 유·무인도(유인도 7, 무인도 58)로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해남군은 서북으로는 목포시, 서남으로는 진도군, 남으로는 완도군, 동으로는 강진군 등 5개 시군과 접하고 있다.

지형을 보면, 소백산맥의 지맥이 해남반도 끝까지 이어진 서남단 해안에 위치하여 완만한 구릉을 형성하고 있으나 동북부 지역에서는 흑석산(해발 650m) 등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다. 해남군의 중부 및 서남부는 평야지대로 간척지, 염전, 양식장 등이 있다. 해남군의 전반적인 지질은 쑥돌이라 하여 건축 토목용 재료로 사용되는 화강암과 변성화강암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화산재 등이 굳어져 가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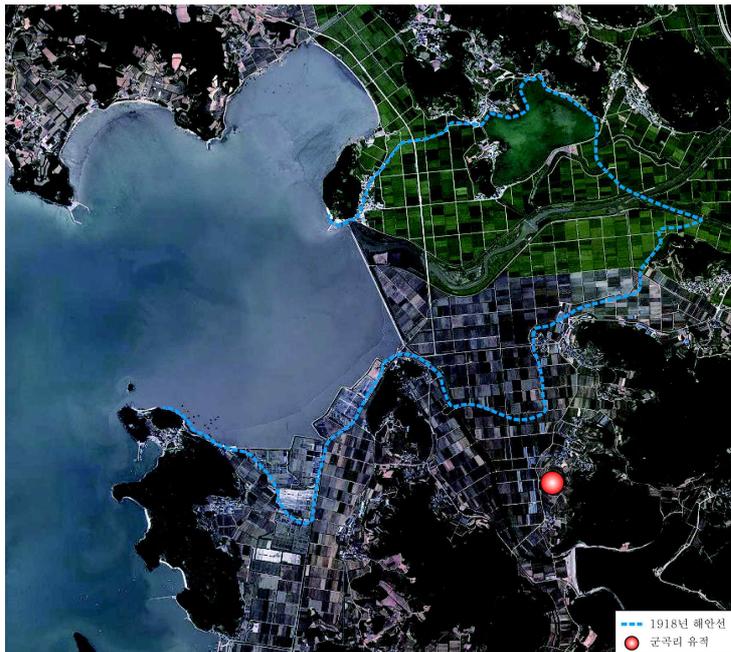


사진 1. 조사지역 해안선 및 위치도(위성사진)

최고기온은 37.1℃, 최저 기온은 영하 9.8℃이며, 강수량은 1,360.2mm이다. 강수량의 60%가 6~10월에 집중되어 하계 집중강우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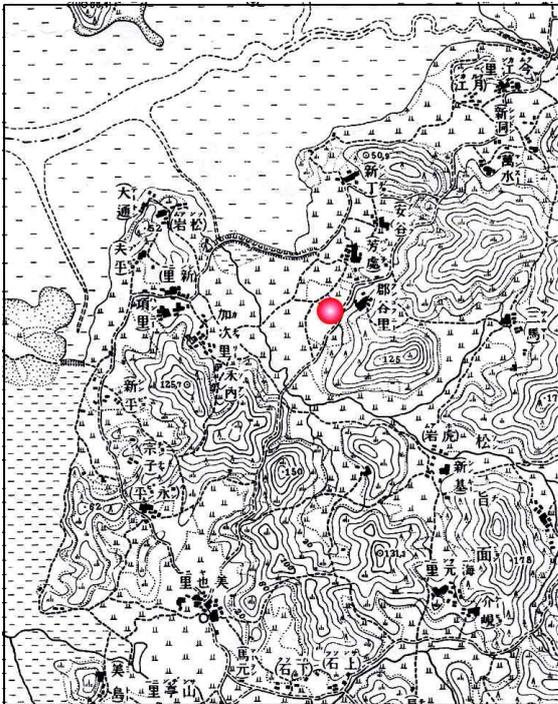
편리하여 토목 재료 등에 사용되는 응회암과 분암 등 복잡한 지질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 암석의 풍화작용과 바다의 퇴적 작용으로 이루어진 옥천평야가 있다.

기후는 해양성으로 온화하나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그다지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황해 동부해류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기후 중 따뜻한 편으로 대륙성 기후의 영향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어업에 알맞다. 평균기온은 14℃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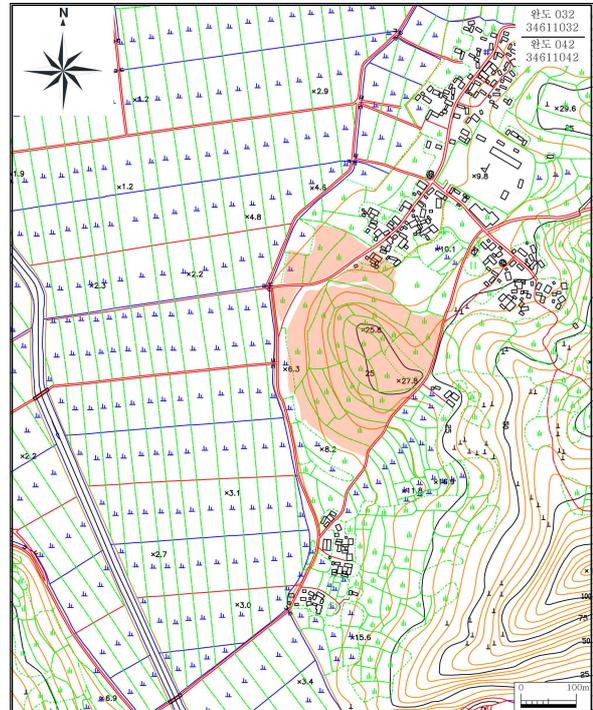
2. 고고·역사적 배경

해남군은 고대로부터 한반도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이 교차되는 곳으로 해로를 통한 다양한 문화 교류를 보여준 지역이다.

해남지역의 선사·고대유적에 대한 목록은 1975년¹⁾과 1977년²⁾에 각각 작성되었으나, 본격적인 종합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86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이다³⁾. 이후에도 해남군에서는 부분적으로 지표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 새로운 유적들이 추가·보완되었다⁴⁾. 또한 해남군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해남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을 위한 지표조사에서 새로운 유적이 다수 조사되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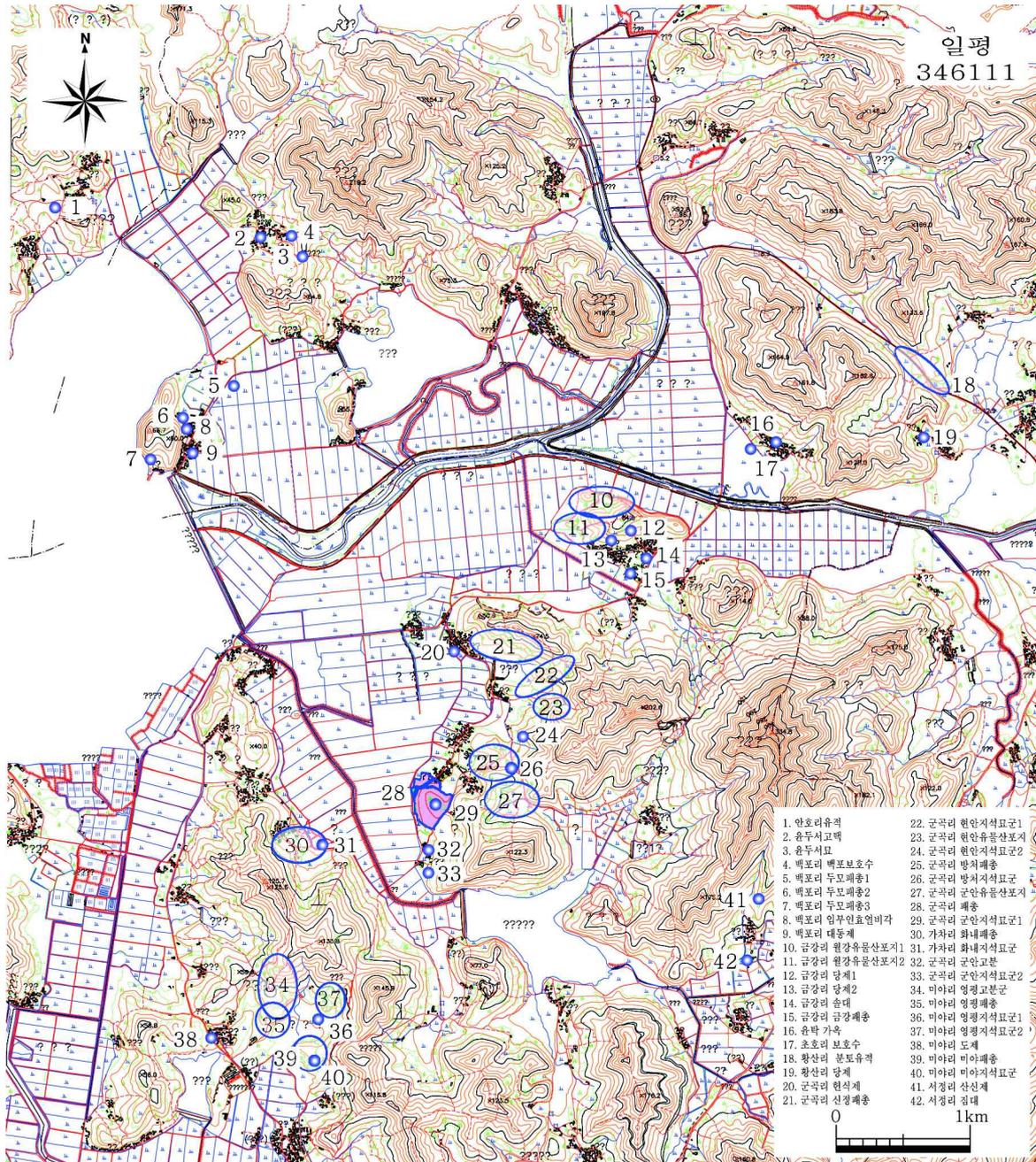
도면 1. 조사지역 근대지도(1918년)



도면 2. 조사지역 위치도(1:5,000)

- 1) 최몽룡 1975, 『전남고고학지명표』.
- 2)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전라남도』.
- 3) 최성락 1986, 「해남지방의 선사유적·고분」,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4) 성낙준·신상호 1989, 「해남 원진리 옹관묘」, 『영암 와우리 옹관묘』, 국립광주박물관.
은화수 외 2001, 「해남 북일면일대 지표조사보고」,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시굴조사 보고』, 국립광주박물관.
이영철·이은정 2002, 「전남 해남 출토 신자료 보고」, 『호남고고학보』 15, 목포대학교박물관.
- 5) 정영희·최미숙 2002, 「해남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적·유물」, 『박물관연보』 11호, 목포대학교박물관.

패총은 한반도 최남단인 해안지대를 따라 현산면과 송지면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패총을 형성하는 패각은 굴껍데기와 꼬막껍데기가 주를 이루며, 유물은 경질 무문토기와 경질찰문토기,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이 주로 출토되었다.



도면 3. 해남 군곡리 패총 주변 유적 분포도(1:25,000)

이 지역에서 조사된 패총 가운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군곡리 패총⁶⁾은 철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발굴 결과 패각층 두께가 2~3m에 이르며,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경질찰문토기를 비롯한 철기시대의 각종 토기류, 토제품, 복골, 골각기, 동물뼈, 중국 신나라때 화폐인 화천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계곡면 반계리에서 확인된 패각층은 짧은 기간 동안 조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군곡리 패총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골각기, 철도자,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산포지는 해남군 전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발굴조사 예가 많지 않아 유적의 확실한 성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신금유적, 황산리 분토유적, 안호리유적 등이 발굴되면서 해남지역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모아지고 있다. 신금유적⁷⁾에서는 주거지 75기, 수혈 15기, 주구 4기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이며, 규모는 4m 내외가 주류를 이루나 8m에 이르는 대형인 경우도 확인된다. 신금 주거지는 주변에 도랑을 두른 경우와 두르지 않은 경우로 대별된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화덕시설, 벽구, 주공 등이 확인되며, 유물은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주조철부,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황산리 분토유적⁸⁾은 삼국시대 주거지와 고분이 함께 조사된 복합유적이다. 조사지역에 따라 가지구와 나지구로 구분된다. 가지구에서 삼국시대 고분 7기, 토광묘 2기, 옹관묘 4기 등의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고, 나지구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57기, 토광묘 3기, 옹관묘 2기, 석실분 2기 등과 함께 청동기시대 유구들도 조사되었다.

화산면 안호리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50여기에 이르는 제형분과 100여기 이상의 토광묘, 옹관묘, 목곽묘가 최근 조사되었다.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지만 백포만 일대를 무대로 활동했던 해상세력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최성락 1987, 『해남 군곡리패총 I』,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 1988, 『해남 군곡리패총 II』, 목포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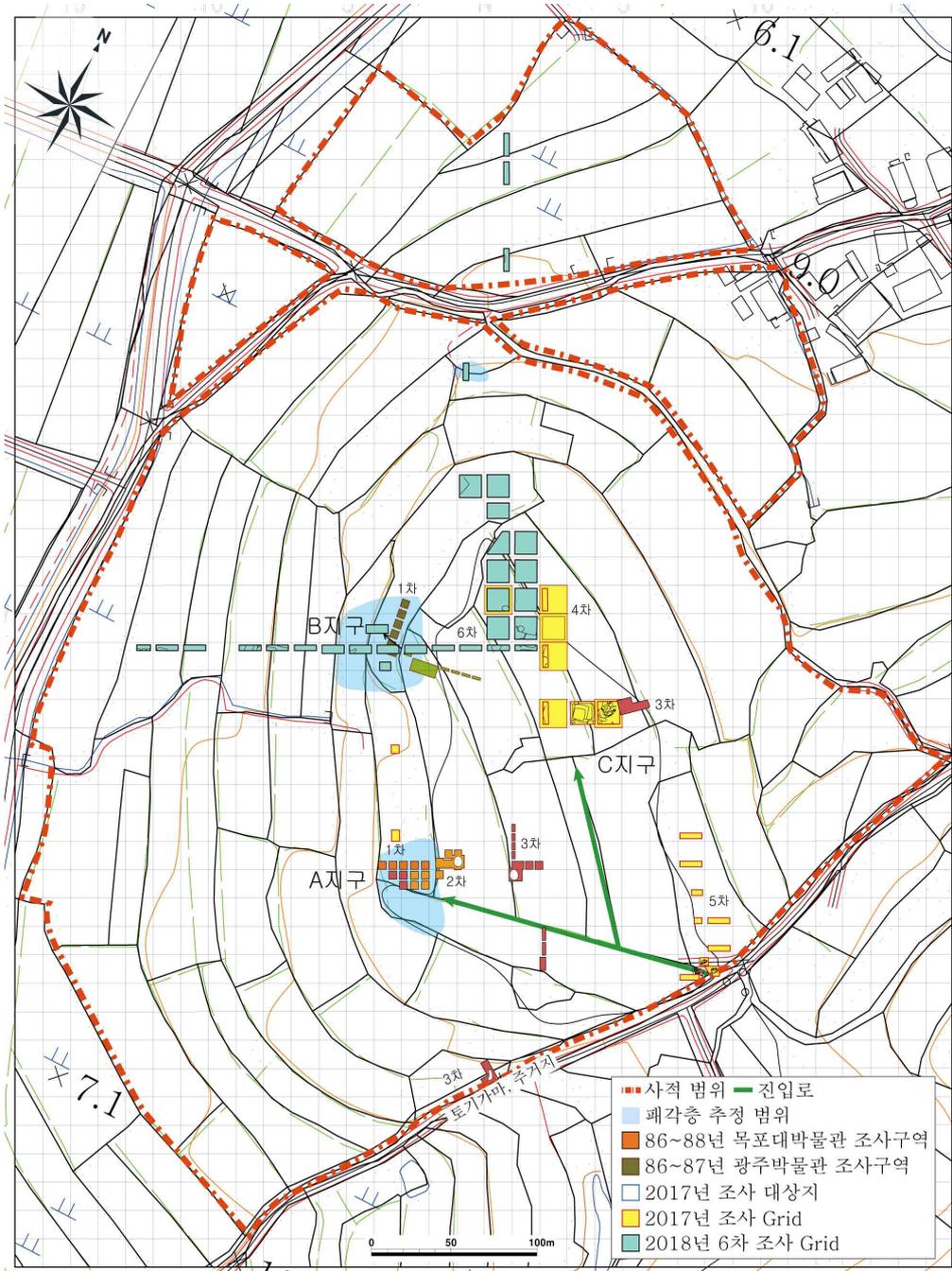
최성락 1989, 『해남 군곡리패총 III』, 목포대학교박물관.

7)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해남 신금유적』.

8)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I·II』.

Ⅲ. 조사내용

발굴조사는 구릉의 상부를 중심으로 경사면과 평지부에 10×10m Grid 30여개를 설치하여 층위 발굴한 결과 Pit 내부에서 주거지, 수혈, 옹관묘, 패총, 소성유구 등을 확인하였다.



도면 4. 연도별 조사대상지



사진 2. 유적 전경(직상)

1. 패각 층위

1) S2W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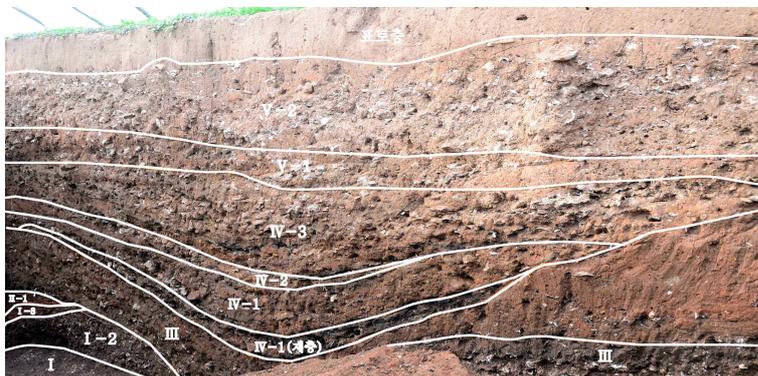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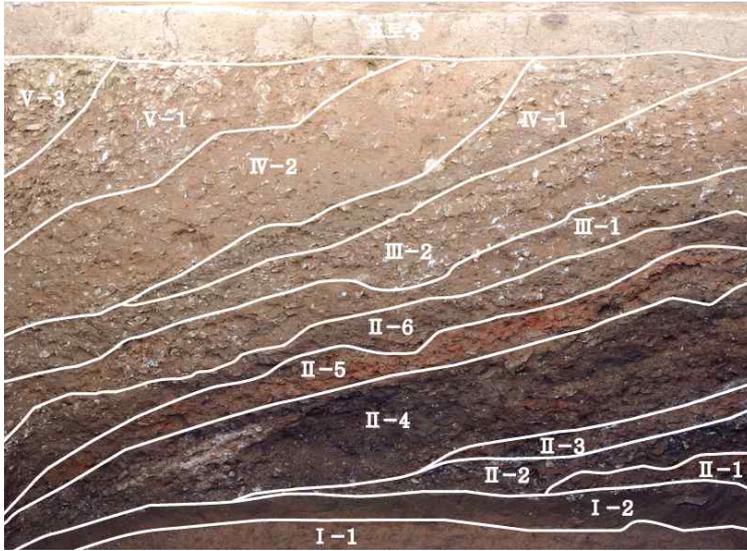


사진 3. 층위도 (S2W3 북쪽)

- V-2층 (적갈색혼토파층)
- V-1층 (적갈색혼토파층)
- IV-3층
(혼토파층: 회갈색+적갈색+명갈색+사질+재)
- IV-2층 (혼토파층: 적갈색+암갈색+사질)
- IV-1층 (혼토파층: 암갈색+적갈색+회갈색)
- IV-1층 (재층: 흑색 + 패각)
- III층
(혼토파층: 명갈색+암갈색+적갈색+회갈색+재)
- II-1층 (회갈색혼토파층)
- I-3층 (적갈색혼토파층)
- I-2층 (흑갈색혼토파층)
- I-1층 (적갈색 기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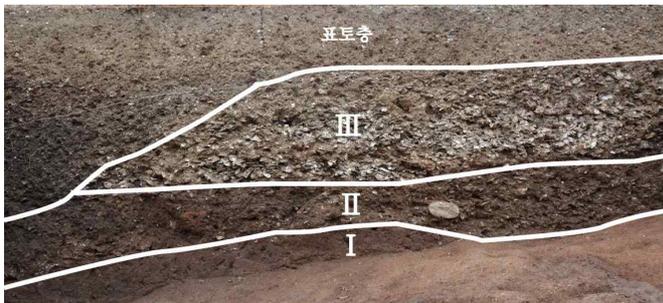
2) S3W4



- V-3층(혼토폼층:흑갈색+암갈색)
- V-2층(적갈색혼토폼층)
- V-1층(혼토폼층:암갈색+적갈색)
- IV-2층(명갈색혼토폼층)
- IV-1층(혼토폼층:흑갈색+목탄+소토)
- III-2층(혼토폼층:암갈색+적갈색+녹갈색)
- III-1층(혼토폼층: 명갈색+황갈색+암갈색)
- II-6층(혼토폼층:암갈색+소토+목탄)
- II-5층(담갈색혼토폼층)
- II-4층
(혼토폼층: 암갈색+담갈색+재층+사질+소토)
- II-3층(담갈색혼토폼층)
- II-2층
(혼토폼층:흑갈색+암갈색+소토+목탄)
- II-1층(담갈색혼토폼층)
- I-2층(회흑색점토층)
- I-1층(적갈색 기반토)

사진 4. 층위도(S3W4 북쪽)

3) S2W5



- III층(암갈색혼토폼층)
- II층(적갈색혼토폼층)
- I층(밤색점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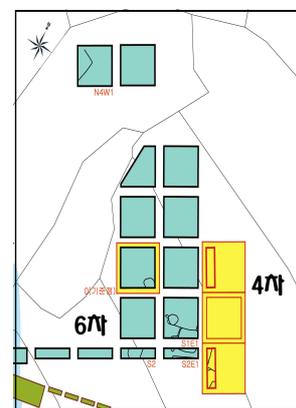
사진 5. 층위도 (S2W5 북쪽)

2. Pit별 조사내용

1) 구릉 상부(0, S1E1, S2E1, S2, N4W1)

구릉 상부 일대는 광범위하게 유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 볼 때 주거지, 수혈, 토광묘, 옹관묘, 가마 등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거지는 오랜 시간동안 축조와 폐기가 반복되면서, 백여기 이상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는 0 Pit를 중심으로 진행한 결과 수혈, 옹관묘, 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지는 2017년도 조사와



도면 5. 구릉 상부

마찬가지로 중복 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재 확인할 수 있었다.

(1) 수혈

0 Pit와 S1E1 Pit에서 확인된다. 0 Pit 수혈은 남동쪽 모서리에 위치한다.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장축길이 235cm, 단축 190cm, 깊이 20cm이다. 장축 방향은 동-서(N19° E)이다. 유물은 바닥면과 퇴적토에서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과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S1E1 Pit 수혈은 서벽 중앙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주거지로 인하여 상부구조가 파괴되었다. 규모는 장축 222cm, 단축 200cm, 깊이 34cm이다. 장축방향은 동-서(N10° E) 이다. 유물은 바닥면에서 타날문이 찍혀 있는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사진 6. 0 Pit 수혈 전경



사진 7. S1E1 Pit 수혈 전경



사진 8. 출토유물(上 0 Pit, 下 좌 0 Pit, 우 S1E1 Pit)

(2) 옹관묘

S1E1 Pit 서벽 중앙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나 주거지로 인하여 동쪽 일부가 훼손된 상태이며, 후대의 경작으로 옹관묘 상부가 파괴되었다. 옹관은 훼손상태가 심해 기형은 파악할 수 없으나 소형토기 2점을 서로 맞대어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용은 외면에 타날문이 찍혀 있으며, 소용은 경질 무문토기 저부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동-서(N2° E)이며,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수혈의 규모는 길이 81cm, 너비 39cm, 깊이 6cm이다.



사진 9. S1E1 Pit 옹관 전경(左), 옹관 세부(中), 옹관 주변 부장유물(右)

(3) 주거지

S1E1, S2E1, S2 Pit에서 확인되며, 여러 기가 복잡한 중복관계를 보이고 있다. 내부조사는 S1E1 Pit 주거지 1기만이 진행되었다. 후대의 경작으로 인하여 상부구조와 벽면 일부는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계이며, 잔존 규모는 장축길이 698cm, 단축길이 580cm, 깊이 6cm 정도이다. 장축방향은 동-서(N5° E)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화재로 인하여 폐기된 것으로 보이며,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호형토기, 발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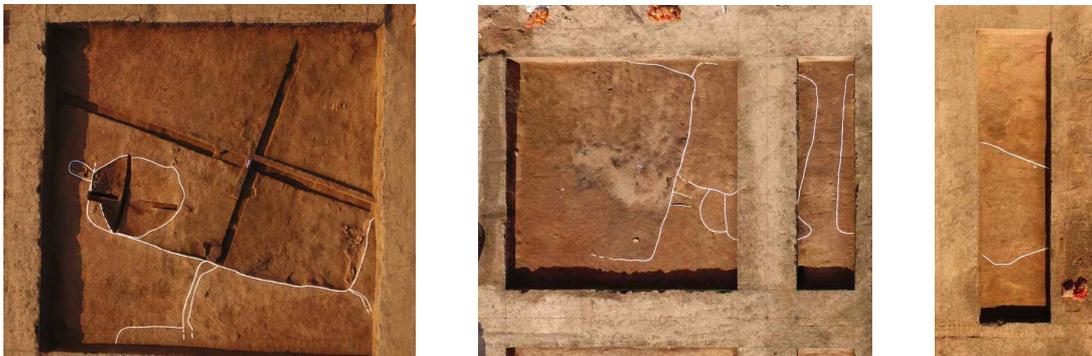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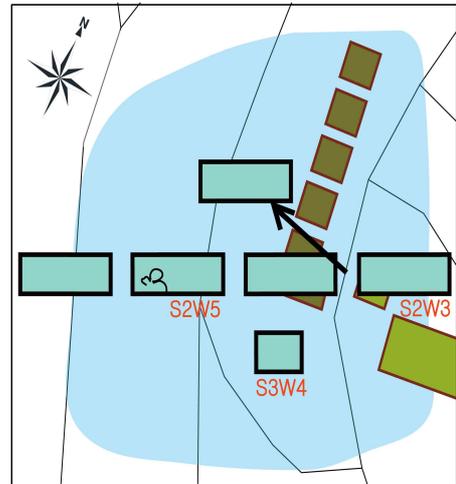


사진 10. S1E1 Pit 주거지(좌), S2E1 Pit 주거지(중), S2 Pit 주거지(우) 전경

2) 구릉 경사면(S2W3, S3W4, S2W5)

경사면에는 패총이 세 곳에 걸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쪽 경사면 1곳과 서쪽 경사면 2곳으로 특히 서쪽 경사면에는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서쪽 경사면 1곳을 선정하여 진행한 결과 패총이 쌓이기 시작한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사면은 조개껍질과 생활쓰레기등을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패각층이 최고 3m 높이 쌓여 있으며, 여러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도면 6. Pit 배치도 (구릉 경사면)

(1) 패총의 패각층위(사진 3~7 참조)

S2W3, S3W4, S2W5 Pit에는 패각층위가 많게는 12개 층에서 적게는 3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층위별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에 따라 문화층을 나눌 수 있으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의 양상을 볼 때 패총의 형성 이전 시기는 패각층의 최하단층에서 출토되는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 석촉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은 패각이 쌓이기 시작한 층으로 경질무문토기(호, 주구토기, 발, 뚜껑, 장경호, 소형토기, 시루), 복골, 골각기(화살촉, 빗창, 가오리침, 작살, 바늘, 도자병 등), 방추차, 장신구(패천, 토제 곡옥, 유리구슬, 패제 관옥 등) 등이 출토된다. 특히 경질무문토기는 패각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타날문 토기가 등장하는 시점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패각이 마무리되는 최상단층은 타날문토기(호형토기, 장관형토기, 발형토기, 시루, 등), 골각기(화살촉),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자연유물은 패각류(참굴, 바지락, 전복, 꼬막, 대합, 동죽, 가리맛조개, 피조새, 가리비, 등), 포유류(사슴, 노루, 멧돼지, 개, 소), 파충류(바다거북), 조류(꿩, 고방오리), 양서류(개구리), 어류(민어, 송어, 감성돔, 참돔, 상어, 농어 등), 곡물류(보리, 콩, 도토리, 등)가 출토되나, 층위별 양상은 추후 검토가 요망된다.



사진 11. 출토유물 (골각기, 소형토기 등)

(2) 소성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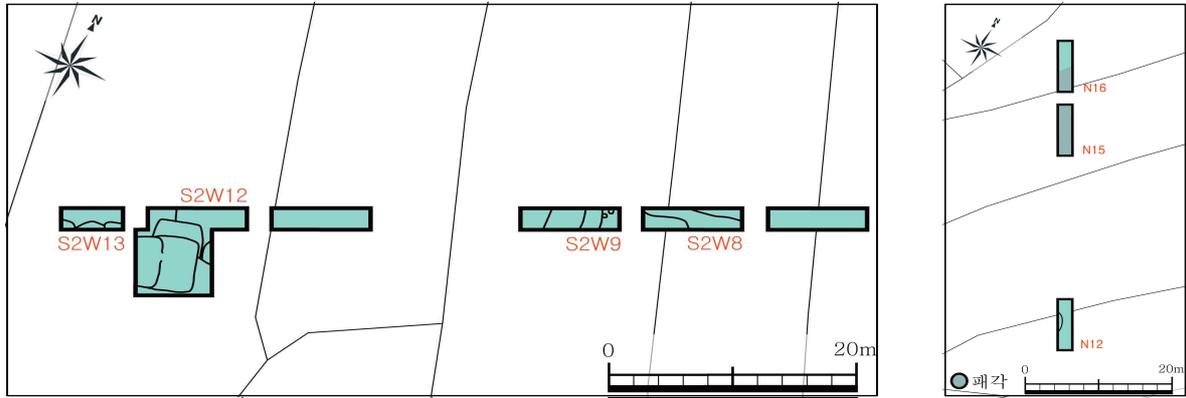
소성 유구는 S2W5 Pit 바닥면에서 총 3개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계로 규모는 장축 63~123cm, 단축 69~94cm 정도이다. 상부구조는 파괴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바닥면만이 남아 있다. 바닥면은 부분적으로 소결되어 있으며, 소토와 목탄 등이 관찰된다. 또한 내부 퇴적토에서 소성유구의 벽체편으로 추정되는 점토에 초본류를 섞어 만든 소토 덩어리가 확인되며, 유물은 경질무문 토기편(시루, 발, 완 등)이 출토되었다.



사진 12. 소성유구 전경(左), 세부유구 및 출토유물(右)

3) 평지부(S2W9, S2W12, S2W13, N12)

구릉의 하단에 위치한 평지부는 광범위하게 유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 볼 때 주거지 수백여 기가 잔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동기시대부터 ~ 삼국시대 유구가 층을 이루며 확인된다.



도면 7. Pit 배치도 (평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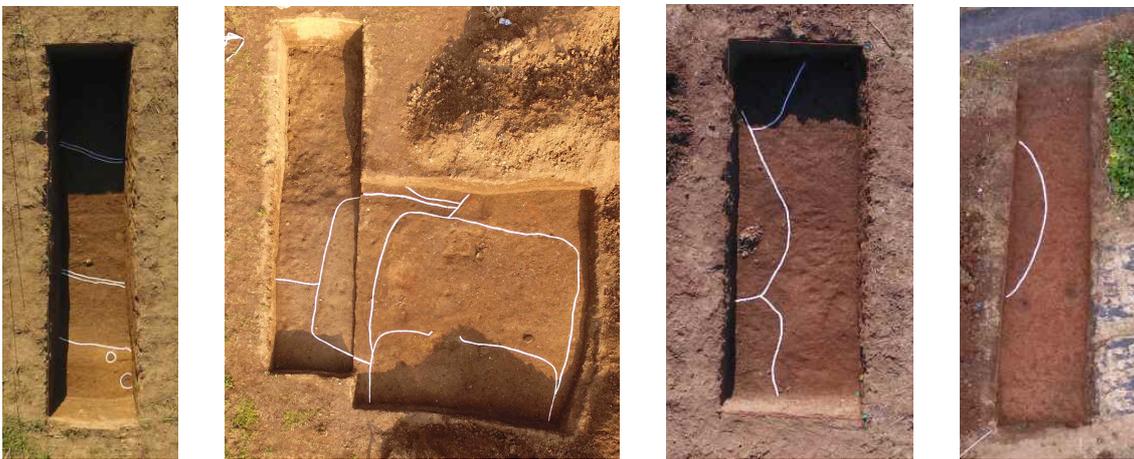


사진 13. S2W9, S2W12, S2W13, N12 Pit 주거지 전경 (왼쪽부터 순서대로)

IV. 조사성과

해남 군곡리 패총(사적 제449호)은 1986년 ~ 1988년, 2017년도에 발굴 조사되어 지식묘, 패총, 주거지, 토기가마, 수혈 등의 유구와 토기류(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 골각기(화살촉, 빗창, 가오리 침, 작살, 바늘, 도자병 등), 방추차, 장신구(패천, 토제 곡옥, 유리구슬, 패제 관옥), 화천, 철제 낚싯바늘과 자연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전남지역 철기시대 편년에 근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 시기에 대한 문화적 공백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한반도-일본열도를 연결하는 고대 항로의 중요 거점지로서 교류의 흔적이 발견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기시대 패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0년대 패각층을 중심으로 한 발굴과 2017년 발굴 조사된 지식묘와 주거지만으로는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반영한 현 조사에서는 구릉의 상부, 경사면, 평지부에 10×10m Pit 30여 개를 설치하여 유적의 전체적인 성격과 층위를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구릉의 상부는 기원 후 조성된 주거지, 수혈, 토광묘, 옹관묘 등의 유구가 밀집 분포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방형계로 점토벽체와 부뚜막, 벽구, 주공 등의 내부 시설물이 확인되며, 경질무문토기, 호형토기, 발형토기,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2. 구릉의 경사면에는 북쪽 1곳과 서쪽 2곳의 세 지점에 걸쳐 패각층이 형성되어 있다. 서쪽 경사면에 넓은 규모의 패각층이 분포하는데 이 가운데 북서쪽에 가까운 패각층은 2세기 말부터 기원후 5세기대까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타날문토기가 출토되는 패각층이 확인되어 패총의 하한을 기원후 2~3세기에서 5세기대로 수정하게 되었다. 또한, 소성유구에서 점토에 초분류를 섞어 만든 소토 덩어리와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어 가장 빠른 단계의 토기가마가 군곡리 유적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 구릉의 평지부에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문화층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유구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삼국시대 주거지, 패총 등이다. 특히, 삼국시대 주거지는 구릉의

상부에서 확인된 예와 같이 중복관계가 심하고, 점토벽체와 부뚜막과 같은 내부시설물 등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외면에 타날문이 찍혀 있는 호형토기, 장란형토기, 주구토기,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평지부에는 수백 기의 주거지와 다양한 유구들이 밀집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군곡리 패총은 패각층에서 출토된 유물을 분석하여 전남지역 철기시대 편년에 근간을 마련하는 한편 고대항로를 통한 철기문화의 전파과정, 고대인의 식생활 문화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 더불어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주거지, 수혈, 소성유구(토기가마?), 옹관묘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군곡리 패총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군곡리 유적은 단순히 철기시대 패총으로서가 아니라 집단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복합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또한, 서남해안 지역에 들어선 거대 취락유적으로 고대 해상세력의 근거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당시의 마을 경관을 복원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활유구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평지부와 생산시설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사면에 추가적인 시·발굴조사를 통하여 군곡리 복합유적이 재평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사단의견서

해남 군곡리 패총(사적 제449호)은 1986년 ~ 1988년, 2017년도에 발굴 조사되어 지식묘, 패총, 주거지, 토기가마, 수혈 등의 유구와 토기류(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 골각기(화살촉, 빗창, 가오리 침, 작살, 바늘, 도자병 등), 방추차, 장신구(패천, 토제 곡옥, 유리구슬, 패제 관옥), 화천, 철제 낚싯바늘과 자연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전남지역 철기시대 편년에 근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 시기에 대한 문화적 공백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한반도-일본열도를 연결하는 고대 항로의 중요 거점지로서 교류의 흔적이 발견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기시대 패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0년대 패각층을 중심으로 한 발굴과 2017년 발굴 조사된 지식묘와 주거지만으로는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반영한 현 조사에서는 구릉의 상부, 경사면, 평지부에 10×10m Pit 30여 개를 설치하여 유적의 전체적인 성격과 층위를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구릉의 상부는 기원 후 조성된 주거지, 수혈, 토광묘, 옹관묘 등의 유구가 밀집 분포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방형계로 점토벽체와 부뚜막, 벽구, 주공 등의 내부 시설물이 확인되며, 경질무문토기, 호형토기, 발형토기,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2. 구릉의 경사면에는 북쪽 1곳과 서쪽 2곳의 세 지점에 걸쳐 패각층이 형성되어 있다. 서쪽 경사면에 넓은 규모의 패각층이 분포하는데 이 가운데 북서쪽에 가까운 패각층은 2세기 말부터 기원후 5세기대까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타날문토기가 출토되는 패각층이 확인되어 패총의 하한을 기원후 2~3세기에서 5세기대로 수정하게 되었다. 또한, 소성유구에서 점토에 초분류를 섞어 만든 소토 덩어리와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어 가장 빠른 단계의 토기가마가 군곡리 유적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 구릉의 평지부에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문화층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유구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삼국시대 주거지, 패총 등이다. 특히, 삼국시대 주거지는 구릉의

상부에서 확인된 예와 같이 중복관계가 심하고, 점토벽체와 부뚜막과 같은 내부시설물 등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외면에 타날문이 찍혀 있는 호형토기, 장란형토기, 주구토기,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평지부에는 수백 기의 주거지와 다양한 유구들이 밀집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군곡리 패총은 패각층에서 출토된 유물을 분석하여 전남지역 철기시대 편년에 근간을 마련하는 한편 고대항로를 통한 철기문화의 전파과정, 고대인의 식생활 문화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 더불어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주거지, 수혈, 소성유구(토기가마?), 옹관묘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군곡리 패총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군곡리 유적은 단순히 철기시대 패총으로서가 아니라 집단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복합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또한, 서남해안 지역에 들어선 거대 취락유적으로 고대 해상세력의 근거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당시의 마을 경관을 복원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활유구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평지부와 생산시설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사면에 추가적인 시·발굴조사를 통하여 군곡리 복합유적이 재평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9년 01월 11일

목포대학교박물관장



[별지 제1호 서식]

출 토 유 물 현 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 량	비 고
1. 금속		1	
2. 옥석유리		4	
3. 토도		27점	
4. 골각		16점	
5. 목죽초칠		·	
6. 기타		30박스	
계		48점/30박스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 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	단경호	1	토도	철기	13.5	12	7.5	18HG-약01	
2	잔	"	"	"	7.13	(7.9)	4.84	18HG-약02	
3	소발	"	"	"	(5.88)	(9.48)	4.85	18HG-약03	
4	소형토기	"	"	"	(4.34)	(6.97)	4.85	18HG-약04	
5	발	"	"	"	(8.88)	(11.55)	7.59	18HG-약05	
6	뚜껑	"	"	"	4.38	6.14	(12.18)	18HG-약06	
7	뚜껑	"	"	"	7.55	4.68	10.9	18HG-약07	
8	옹	"	"	"	(15.4)	·	(8.55)	18HG-약08	
9	호	"	"	"	(8.8)	(20.2)	7.33	18HG-약09	
10	발	"	"	"	(7.7)	(14.5)	7.82	18HG-약10	
11	잔	"	"	"	6.43	(7.55)	4.31	18HG-약11	
12	소형토기	"	"	"	7.2	5.09	4.14	18HG-약12	
13	옹	"	"	"	(14.8)	(29.5)	8.61	18HG-약13	
14	옹	"	"	"	(10.8)	(17.42)	9.59	18HG-약14	
15	소발	"	"	"	8.9	·	(3.45)	18HG-약15	
16	잔	"	"	"	6.7	·	(3.25)	18HG-약16	
17	옹	"	"	"	(12.5)	(14.7)	8.09	18HG-약17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 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8	호	"	"	"	(18.5)	(23.8)	17.85	18HG-약18	
19	잔	"	"	삼국	5.4	.	5.56	18HG-약19	
20	심발	"	"	삼국	14.7	(16.8)	18.85	18HG-약20	
21	방추차	"	"	철기	.	3.2	1.2	18HG-약21	
22	방추차	"	"	"	.	3.1	1.5	18HG-약22	
23	방추차	"	"	"	.	3.2	0.9	18HG-약23	
24	방추차	"	"	"	.	3.5	1.72	18HG-약24	
25	토제곡옥	"	"	"	3.5	0.28~1.1	0.35~1.2	18HG-약25	
26	토제구슬	"	"	"	1.7	.	1.78	18HG-약26	
27	석제곡옥	"	옥석	"	3.55	0.8~1.09	0.35~0.7	18HG-약27	
28	토제곡옥	"	토도	"	4.82	0.68~1.7	0.65~1.9	18HG-약28	
29	골촉	"	골각	삼국	6.51	0.28~0.6	0.28~0.4	18HG-약29	
30	골촉	"	"	"	(6.22)	0.2~0.8	0.24~0.6	18HG-약30	
31	골촉	"	"	"	(6.05)	0.42~0.9	0.35~0.5	18HG-약31	
32	골촉	"	"	"	(6.66)	0.35~1.2	0.34~0.5	18HG-약32	
33	골촉	"	"	철기	7.45	0.15~0.7	0.05~0.7	18HG-약33	
34	골촉	"	"	"	(6.6)	0.12~0.8	0.12~0.4	18HG-약34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 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35	가오리촉	"	"	"	(8.18)	0.41~0.8	0.24~0.34	18HG-약35	
36	도자병	"	"	삼국	11.52	0.64~2.62	0.6~1.43	18HG-약36	
37	용도미상 골각기	"	"	철기	4.87	.	.	18HG-약37	
38	용도미상 골각기	"	"	"	5	0.25~0.48	.	18HG-약38	
39	빗창	"	"	"	12.54	2.68	1.32	18HG-약39	
40	용도미상 골각기	"	"	"	8.35	0.69	.	18HG-약40	
41	골제 뒤꽂이	"	"	"	(6.63)	3.5~ 4.6	0.45	18HG-약41	
42	복골	"	"	삼국	(7.35)	(7.95)	0.15~0.5	18HG-약42	
43	복골	"	"	철기	(11.1)	2.17~6.6	0.1	18HG-약43	
44	패제관옥	"	골각	"	2.51	0.68	.	18HG-약44	
45	석촉	"	옥석	"	4.57	0.68~1.45	0.62	18HG-약45	
46	지석	"	옥석	"	6.08	5.32	0.82~1.92	18HG-약46	
47	미완성 관옥	"	옥석	"	4.12	1.7	.	18HG-약47	
48	용도미상 청동기	"	금속	삼국	5.55	1.79~2.1	.	18HG-약48	
49	기타	1박스	토도	철기	.	.	.	18HG-약49	
50-78	"	"	토도 골각	"	.	.	.	18HG-약50 -78	

2. 출토유물 사진



18HG-약01

18HG-약02

18HG-약03



18HG-약04

17HG-약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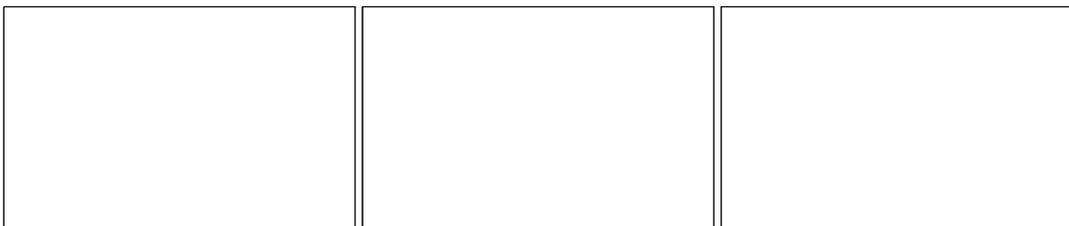
17HG-약06



18HG-약07

18HG-약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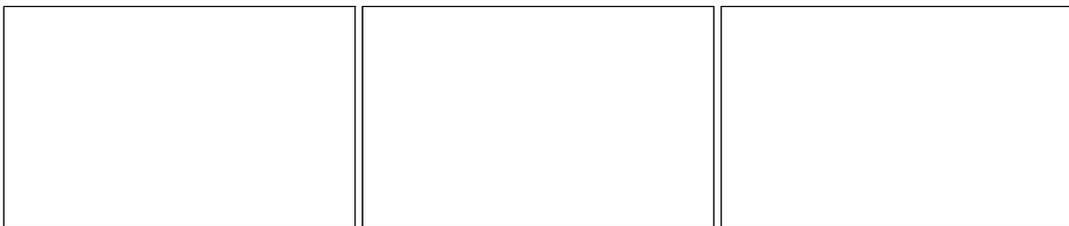
18HG-약09



18HG-약10

18HG-약11

18HG-약12



18HG-약13

18HG-약14

18HG-약15



18HG-약16



18HG-약17



18HG-약18



18HG-약19



18HG-약20



18HG-약21



18HG-약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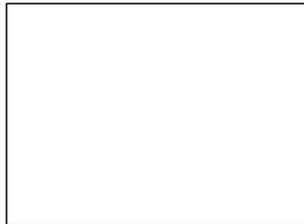
18HG-약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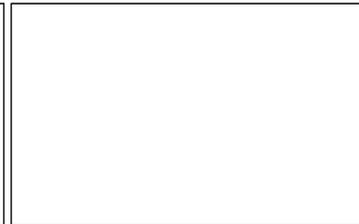
18HG-약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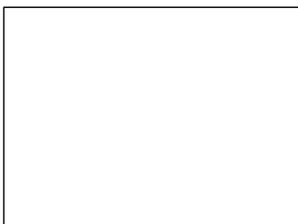
18HG-약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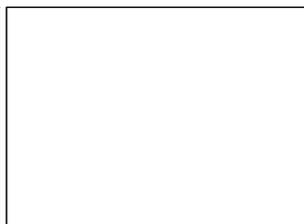
18HG-약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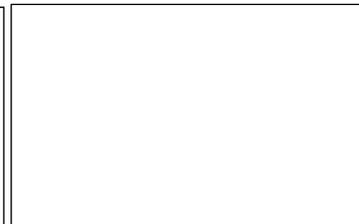
18HG-약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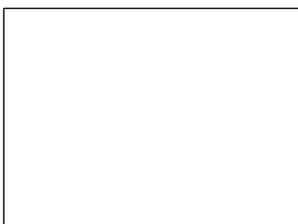
18HG-약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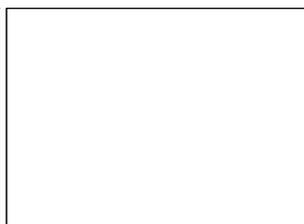
18HG-약29



18HG-약30



18HG-약31



18HG-약32



18HG-약33



18HG-약34



18HG-약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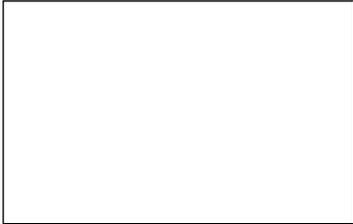
18HG-약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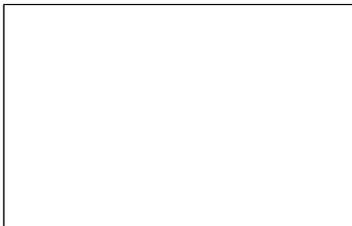
18HG-약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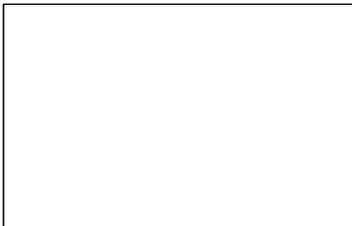
18HG-약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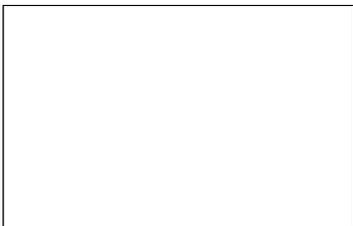
18HG-약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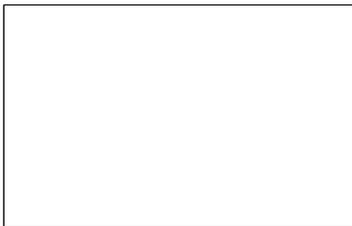
18HG-약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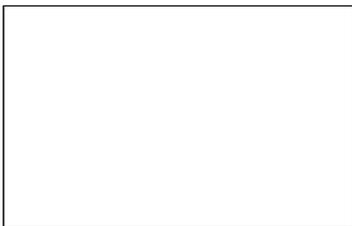
18HG-약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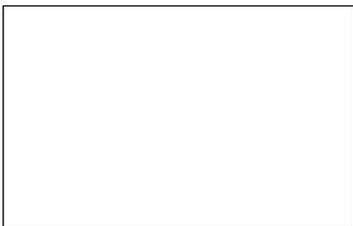
18HG-약42



18HG-약43



18HG-약44



18HG-약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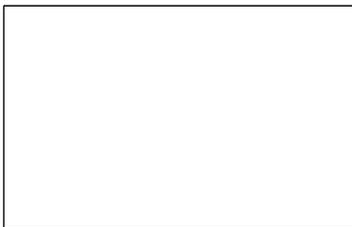
18HG-약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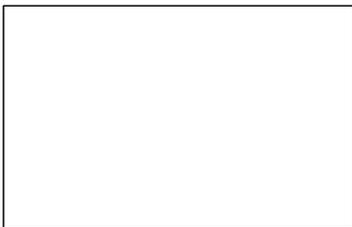
18HG-약47



18HG-약48



18HG-약49



18HG-약50



18HG-약51



18HG-약52



18HG-약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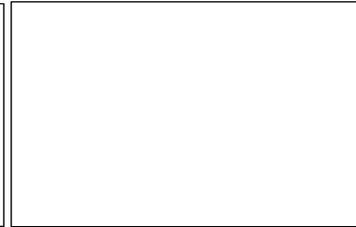
18HG-약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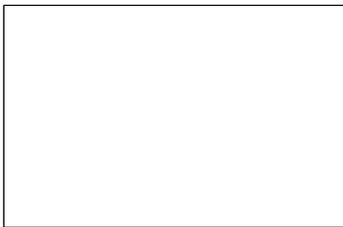
18HG-약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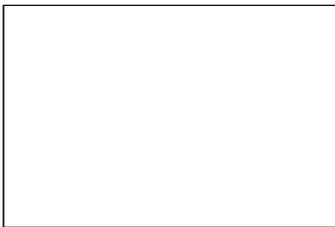
18HG-약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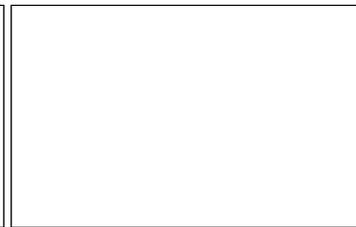
18HG-약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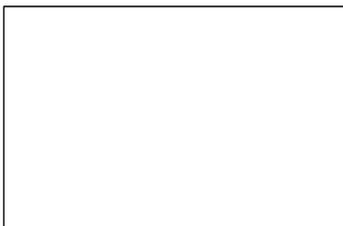
18HG-약58



18HG-약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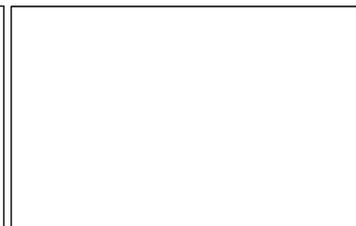
18HG-약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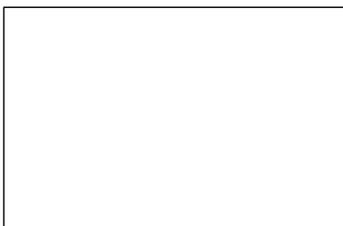
18HG-약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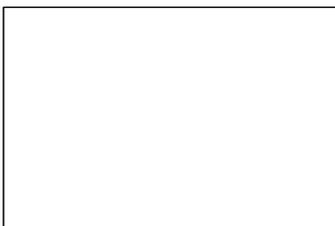
18HG-약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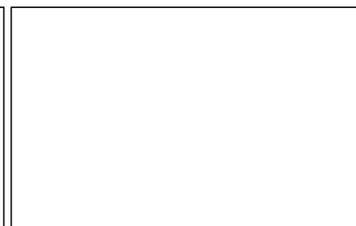
18HG-약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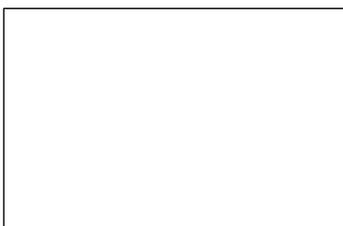
18HG-약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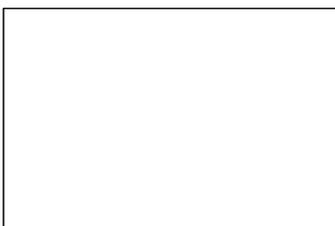
18HG-약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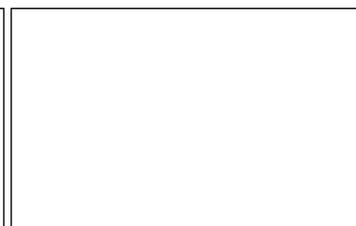
18HG-약66



18HG-약67



18HG-약68



18HG-약69



18HG-약70



18HG-약71



18HG-약72



18HG-약73



18HG-약74



18HG-약75



18HG-약76



18HG-약77



18HG-약78